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미 UPS, 물류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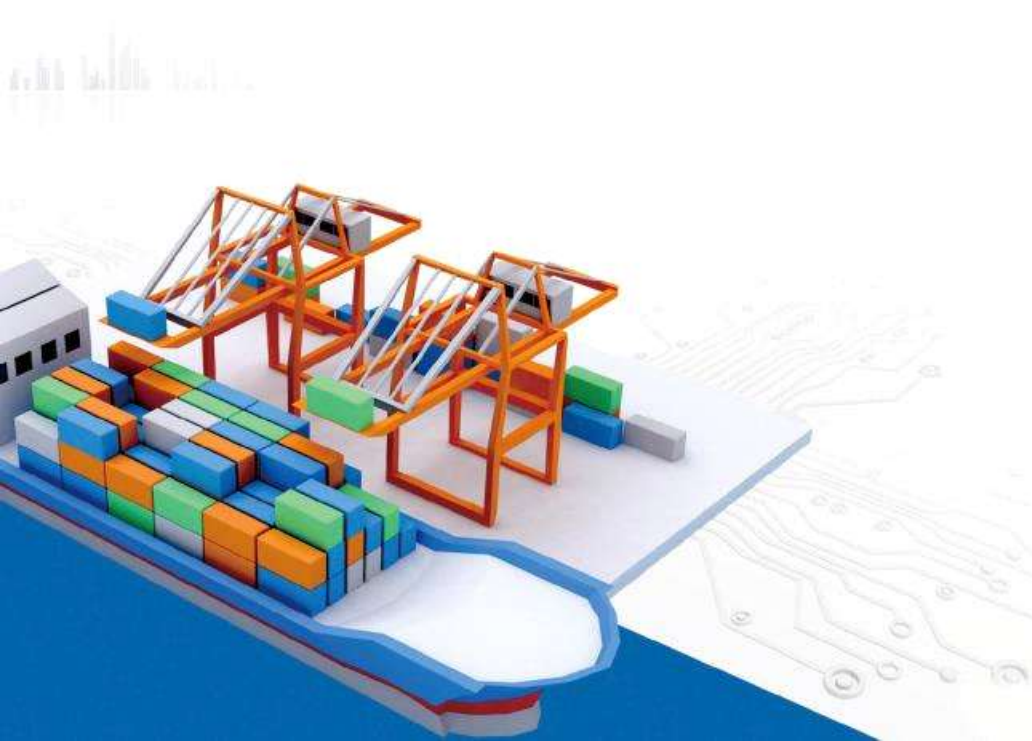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모로코 탕제메드(Tanger Med)항 확장 완료
2.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자동화
3. 이베이, 판매자 위한 물류 지원 서비스 도입 계획 발표
4. 2020년까지 LNG선 지속 증가 전망

명사 스피치

“한진해운에서 일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선사들의 장비담당자들은 힘이 없어 우수인력이 많이 없다고 느껴진다. 우수인력이 와도 3년을 채 못 넘기고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기더라. 모든 물류의 중심엔 컨테이너가 있다. 해운사 총 비용의 약 60%를 점유하는 운송비용,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등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화물 유치를 위한 선사들의 영업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장비 인력관리를 등한시하는 환경이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전병진 박스조인 대표이사(COA 한국대표)
(2019. 7. 26.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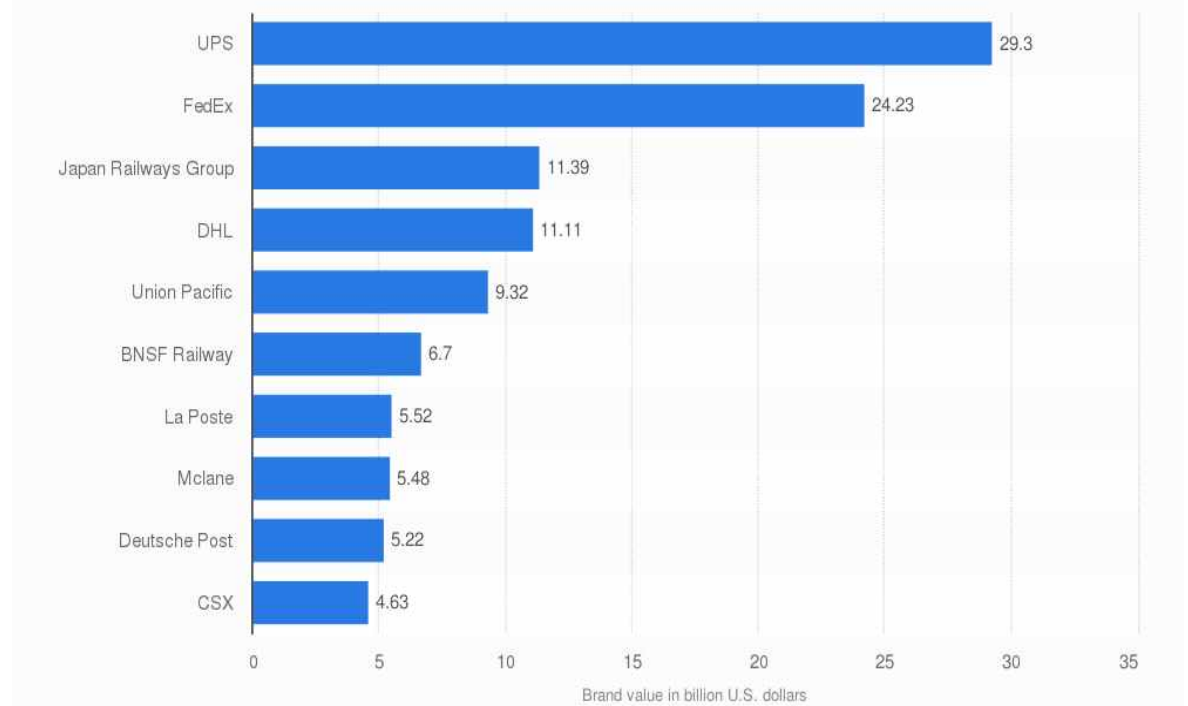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미 UPS, 물류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브랜드 가치 기준 전 세계 상위 10대 물류서비스제공기업 (단위: 10억 달러)



자료 : www.statista.com

- 브랜드 평가·컨설팅 기업 Brand Finance의 「Global 500 2019」에 따르면 전 세계 물류서비스제공기업 중 브랜드 가치 1위는 UPS사(293억 달러), 2위는 FedEx사(242억 달러)로 나타남
 - UPS사는 소화물 배송, 중량화물 운송, 포워딩, 통관 중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첨단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계획을 밝힘
- 특히 10개사 중 5개사(3·5·6·7·10위)는 철도기업으로 3위 일본의 JR Group, 7위 La Poste(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계 기업이 차지함

참고자료 : www.brandfinance.com “Global 500 2019”(검색일: 2019.7.26.)/ www.statista.com “Brand value of the leading logistics service providers in the world in 2019 (in billion U.S. dollars)”, (검색일: 2019.7.26.)/ www.ups.com (검색일: 2019.7.26.)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모로코 탕제메드(Tanger Med)항 확장 완료

- 모로코의 탕헤르(Tangier)는 2007년까지 북 아프리카의 가난한 도시에 불과했으나 세계적인 항만을 건설하면서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함
 - 아프리카 최고의 관광지이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모로코는 '산업가속화 계획(2014~2020)'의 일환으로 산업지역과 함께 항만을 개발해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됨
 - 탕제메드항은 탕헤르 동쪽 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으며 지브롤터해협(Strait of Gibraltar)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음
 - 탕제메드항을 통한 수출입 화물은 2018년 약 331억 4천만 달러 규모로 모로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탕제메드항 건설로 다국적 기업들이 탕제메드항을 이용하기 위해 탕헤르와 인근에 공장을 설립함
 - 물류·자동차·항공·섬유 등 912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탕제메드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7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모로코는 외국기업 유치에 2011년 산업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인 탕헤르 자동차도시(TAC·Tangier Automotive City)를 설립하고 차량 제조, 부품 및 물류기업을 유치해 48시간 이내 유럽수송을 가능하도록 함
- 최근 탕제메드항은 2단계에 걸친 확장사업을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춘 새로운 터미널의 추가 건설을 완료함
 - 2단계에 걸친 탕제메드 확장 사업은 1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되어 9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단계는 2010년 5월에 시작되어 2016년에 완료, 2단계는 2019년에 완료됨
 - 탕제메드항 2단계를 통해 2개의 터미널이 추가되었으며 모로코의 주요 항만운영사인 마사 마로크(Marsa Maroc)가 운영하는 TC3의 하역능력은 100만TEU, APM터미널이 운영하는 TC4의 하역능력은 500만TEU임
 - 탕제메드 항만당국에 따르면 확장사업을 통해 탕제메드항은 연간 컨테이너 900만TEU, 차량 100만 대와 트럭 70만 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700만 명의 승객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탕제메드항은 이번 확장으로 7개 국가 186개 항만을 연결하는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최대 항만으로 성장함
 - 탕제메드항은 컨테이너 하역능력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항과 케냐의 뽀모바사(Mombasa)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항만이 되었고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항, 발렌시아(Valencia)항, 이탈리아의 지오아(Gioia)항 등을 제치고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만이 됨

■ 참고자료 : www.joc.com, 2019.07.19.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자동화

-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은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
 -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이 IDENTEC SOLUTIONS 사의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인 Reefer Runner를 도입해 남미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세 번째 터미널이 됨
 -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은 2011년에 건설되었으며 칠레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다목적 터미널 중 하나로 지난 4년간 에너지 데이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정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작업부하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 왔다고 밝힘
 - 선임 운영 관리자인 Maurico Argandona씨는 “냉장화물 관리 관련 작업을 자동화 및 일부 원격 제어하게 됨으로써 작업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작업자의 부상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냉장화물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힘

모니터링 자동화로 안전해지고 있는 DP World 샌안토니오 터미널



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dp-world-automates-reefer-monitoring/?cn-reloaded=1>

- 우리나라도 항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 해양수산부는 IoT 기반 지능형 항만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술력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과 대학교 및 정부 출연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음
 - 국내 항만 크레인 자동화 설비 개발 기업인 (주)서호전기는 약 7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투아스 항만 자동화 및 컨트롤 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정부와 PA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서호전기와 같이 글로벌 항만 산업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별도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9.07.23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

이베이, 판매자 위한 물류 지원 서비스 도입 계획 발표

- 이베이는 자사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함
 - 이베이는 최근 판매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제품을 고객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물리적 유통 서비스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함
 - 새로운 서비스는 'Managed Deliver'라는 이름으로 판매자들의 주문 및 재고 관리, 포장, 배송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2020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이 서비스는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 운송 및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물류를 활용할 계획임
 -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창고의 위치를 결정한 후 3자 물류를 활용해 판매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힘
 - 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물류 서비스를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없이 온라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
 - 이베이는 플랫폼 판매자들을 대신해 3자 물류 기업과 운송 옵션 및 요금에 대해 협상하며, 이를 통해 중소 판매자에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 이베이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남
 - 이베이의 지난 2분기 매출 실적은 전기 대비 2%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판매된 제품의 총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2분기에는 4% 하락한 226억 달러를 기록
 -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류 서비스 효율화 및 판매자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베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물리적 유통 서비스에 진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전자 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Shopify도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중소 판매자들에게 재고 분배 및 운송 루트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ShipBob이나 Flexe와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급증하는 추세
 - 전자 상거래 업체만이 아니라 FedEx XPOLogistics와 같은 전통적인 물류 회사들도 중소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문 처리 및 입고 등의 물류 지원 서비스를 시작
 - 향후 많은 중소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의 배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www.wsj.com, 2019.7.24. / www.supplychaindive.com, 2019.7.24.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2020년까지 LNG선 지속 증가 전망

-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LNG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LNG 거래는 2019년 8.4%, 2020년 7.4%의 성장이 예상되며 강세를 이어감
- LNG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NG선 또한 2020년까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6월 말 현재 8500m³ LNG선은 모두 570척이며, 2018년 대비 11% 증가했음
 - Clarksons Research는 LNG선의 증가율은 2019년 5.6%, 2020년 6.9%로 전망함
 - LNG선, 부유식 저장 재기화설비(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FSRU),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기지(Floating LNG·FLNG)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6년에는 LNG선이 VLCC의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LNG 거래 증가는 LNG 인프라 산업도 함께 발전시킴
 - 2020년에는 세계 선복량의 3~4%가 LNG추진선일 것으로 추산됨
 - LNG 거래의 증가로 지난 5년 동안 LNG 벙커링이 가능한 항만 수는 약 20개 항에서 100개 항으로 증가함
- 전세계 LNG 시장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LNG 수출 성장률은 호주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
 - LNG 수입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입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LNG선은 2018년 77척이 발주되었으며, 발주량의 9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함
- LNG 거래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정부 및 조선업체는 LNG선 수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 2019.7.26.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